

2020. 10. 2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93571/>

(요약) 어민 우려에도...해상풍력 인근 새어장 생겨

- 광대한 바다 한복판에 변전소 중심으로 풍력터빈이 20기가 들어서 있어 전북 고창,부안군 전력 17%생산
- 구시포항 실증풍력단지는 최근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 지역주민과의 반발이 줄어

지난 23일 전북 고창군 구시포항. 소형 낚시배를 10여 분간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국내 최초 해상 풍력실증단지가 위용을 드러낸다. 이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첫 사례로 찾은 현장이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전력 17.4%를 이곳에서 공급한다. **사면이 모두 육지가 보이지 않는 광대한 바다 한복판엔 변전소를 중심으로**



60MW 규모 풍력 터빈 20기가 들어서 있다. 구시포항은 대대로 알이 짝한 조기들이 많아 낚시 명소로 꼽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제주 해역까지 어장이 밀리자 연안엔 점점 사람들이 발걸음이 뜸해졌다.

한산하던 지역이 다시 소란스러워진 건 10년 전 이 지역에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조업 피해 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을 강행한다는 어민들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업자 간 충돌이 거셌다. 마을 어른들은 앞바다에 세워지는 타워 구조물을 손가락질하며 '마을의 묘비석'이라고 혀를 끝끝 차기도 했다. 하지만 실증단지가 가동된 후 구시포항은 거꾸로 여유를 되찾았다. 풍력단지 반대나 찬성을 외치며 마을을 뒤덮었던 현수막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구시포항이 평화를 찾은 데는 어민들과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 어업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구시포항 실증풍력단지는 최근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했다. 현재 실증단지 용지는 14㎢로 터빈 반경 100m 제외한 모든 구역은 통항할 수 있도록 바뀌며 통항 금지 구역이 95.6%나 줄었다. 수산생물이 서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 어초 36기도 단지 주변에 설치해줬다.

배를 타워에 맞대니 구조물 벽 전체에 때가비가 가득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세워진 공기업인 한국해상풍력 측은 "때개비를 먹기 위해 물고기들이 발전기 주변으로 몰린다"면서 "이런 해상 구조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장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를 운전하던 선장은 "요즘에는 농어가 잡히는 편이고 학꽂지도 인근 연안해에서 많이 잡힌다"고 설명을 보냈다. 조업철이 아님에도 실제로 풍력발전단지 발전기들 사이로 조업선이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다. 인접 지역민들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찾았다고 하지만 중앙 수협 차원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한국해상풍력 측은 "이익 공유를 바탕으로 상호 손해 없이 상생 협약을 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 10. 2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7181?cbs=news_edit

(요약) 이건희, 임직원 앞에서 전화기 15만대 불태워..."質은 포기말라"

- 이건희 회장의 트레이드마크 '신경영'의 시작,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고 한 말에 뜻이 드러나
-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의식부터 바꾸자, 의식구조부터 바꾸는데부터 접근 한 이건희식 경영철학

1993년 6월5일 일본 도쿄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루프트한자 1등석. 이건희 회장은 이륙 후 골똘히 서류를 보고 있었다. 몇 시간쯤 지나 수행 임원들을 불렀다. "일본인 고문이 올린 보고서를 봤는데 '삼성 사람들은 상품을 디자인할 때 A안, B안, C안은 출발부터 개념이 다른데도 윗 사람들은 적당히 섞어서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느닷 없이 디자인을 사흘 안으로 해달라고 주문한다.' 공장에서 콘센트가 발에 걸리적 거려도 정리할 생각을 않고 무심히 지나친다. 이런 기본적인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돼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회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당시 삼성전자 고문이었던 후쿠다씨, 기보씨가 작성한 것이다. 후쿠다 보고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며 기보보고서는 사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 등 기본에 관한 사항이었다.

말문을 연 이 회장은 삼성 변화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기내에서 7시간 동안 쉬지않고 얘기했다. 그의 말은 숙소인 캠핀스키 호텔로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 삼성사내방송(SBC)팀이 만든 30분짜리 비디오판이 전달됐다. 세탁기 뚜껑 규격이 맞지 않아 근로자들이 칼로 깎아내는 장면을 본 이 회장은 격노하며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녹음하세요. 질경영을 그렇게도 강조했는데 이게 그 결과입니까. 사장들과 임원들 전부 프랑크푸르트로 집합시키세요. 이제부터 내가 직접 나설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트레이드마크 '신경영'은 그렇게 시작됐다. 단순히 하루이틀 생각한 게 아니라 십년 이상 후계자 수업을 받고, 회장직을 5년을 하고 나서 쌓였던 고민과 열정을 폭발시킨 것이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고 한 말에 그런 뜻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경영은 어떤 것이길래 삼성은 그후 대변신을 거듭,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났을까.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이 회장의 경영학에 대해 6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① 변해야산다

기업은 변화, 개혁을 부르짖는다. 바뀌지 않고선 변화에서 도태된다. 디지털화 대응이 늦어 뒤쳐진 소니, 스마트폰 폭풍이 휩쓸려 난파한 노키아 등이 좋은 사례다.

그렇지만 이 회장이 달랐던 점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의식부터 바꾸자는 데 있었다. 제도 변경으로 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의식 구조란 근원을 바꾸는 데 부터 접근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이기주의만 없애고 단합이 되고,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 이 지구상에선 일등해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변할 수 있다 △정도를 겹차 △뒷다리를 잡지말자 △비판을 두려워말자 등 의식 개혁에 나섰다. ‘한 방향으로 가자며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은 단 번에 기업문화가 바뀌는 게 쉽지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회장이 부르짖는 변화는 일종의 문화혁명 같았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섰다.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74제를 실시했다. 아침 7시 출근하고 오후 4시 퇴근하는 이 제도는 회장의 개혁 철학을 임직원이 체감토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1995년 공채에서는 파격적으로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해 여사원 근무복 없앴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했다. 1994년 말 문을 연 삼성의료원은 한국의 영안실 문화를 확 바꿨다. 이같은 변화는 점차 재계로 확산됐다.

② 질경영

이 회장은 지속적으로 ‘품질경영’을 주문했다. “세계일류가 되면 이익은 지금의 3~5배 난다. 1년간 회사 문을 닫더라도 불량률을 없애라”고 했지만 삼성 조직은 꼼짝하지 않았다. 60~70년대 만들기 바쁘게 팔려나가던 시절을 겪은 경영진에선 ‘어떻게든 많이 만들면 된다’ 양이 최고다란 의식이 뿌리깊었다.

1993년 6월15일 이 회장은 “질로 가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도 좋다. 적자가 나면 내 사재라도 털겠다”며 10여 시간이 넘게 강의를 했다. 강의 직후 당시 이수빈 비서실장이 여러 사장과 함께 이 회장 방을 찾아왔다. ‘회장님, 아직까지 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질과 양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 순간 이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티스푼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참석자들은 얼굴이 새하얗졌다. 이른바 ‘스푼사건’이다.

이 때부터 본격화된 질경영은 ‘불량제품 회형식’으로 삼성 임직원에게 자리잡기 시작한다. 1994년 삼성전자 무선전화기사업부는 제품 출시를 서두르다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았다. 1995년 1월 이 회장은 불량품을 무조건 새 제품으로 바꿔줄 것을 지시했다. 그 해 3월9일 수거된 15만대의 전화기를 구미사업장 운동장에 쌓았다. 2000여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머를 든 10여명이 전화기를 내리쳤고, 산산조각난 전화기를 불구덩이에 처넣었다. 잡자는 사람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1994년 4위에 그쳤던 삼성 무선전화기의 국내 점유율은 1995년 점유율 19%로 1위에 올랐다.

삼성이 갤럭시S 시리즈로 초일류 기업이 된 것도 이같은 질경영에 기초한다. 작년 5월 갤럭시S3가 출시되기 3주 전, 뒷면 커버의 질감이 초기 기획단계때보다 일부 낮았다. 10만개의 커버가 생산된 상태였고, 수출을 앞둔 갤럭시S3가 비행기에 실려있었다. 이번에는 회형식은 없었지만 10만개의 재고는 모두 폐기되고 교체됐다.

③ 복합화 정보화 국제화

이 회장은 복합화, 정보화, 국제화를 강조했다. 정보화, 국제화는 지금은 보편화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초기에 불과했다. 이 회장은 “1980년대에는 국내에서 챔피언이면 챔피언이었다. 지금은 세계에서 챔피언이라야 챔피언이다”라며 국제화를 강화했다.

주목할 것은 복합화에 대한 생각이다. 이 회장은 복합화를 ‘누운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장, 식당, 집을 100층 짜리 빌딩에 모아놓으면 효율이 커질 것이라는 발상이다. 이 회장은 “100층이든 80층이든 빌딩에 기획, 디자인, 설계, 판매 등 각 조직 담당자가 모두 입주해있다면 필요할 때 40초면 회의실에 모일 수 있다”고 빌딩 복합화의 예를 들었다. 복합화는 빌딩뿐 아니라, 도시 공장 병원 등에도 다 적용된다.

삼성이 수원, 화성, 아산 등에 대규모 용지를 확보한 뒤 공장과 연구시설, 병원, 학교 등을 넣어 대단위 복합단지로 개발한 것은 이 회장의 이같은 발상에서 비롯됐다. 복합화된 대단지를 이룬 삼성은 제품 개발, 양산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

2020. 10. 27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약) 3분기 GDP 성장률 1.9%...한국 경제, 역성장 딛고 반등

- 1분기 -1.3% 2분기 -3.2% 기록 이후 3분기 1.9% 기록하며 반등
- 한은, 올해 GDP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각 1% 증반의 성장 필요



한국 경제가 3분기 2% 가까이 반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으로 1분기와 2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했었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분기 성장률은 사실상 기저효과가 크지만, 3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각 1% 증반의 성장을 해야한다.

3분기 성적표는 양호한 편이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5.6% 늘었다. 1963년 4분기(-2.4%) 이후 '최악' 성적표를 받은 2분기(-16.6%)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수입 역시 원유, 화학제품 등을 위주로 4.9%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6.7% 늘었다.

다만 민간소비가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토목건설 위축 등의 영향으로 7.8% 줄었다.

업종별 생산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 7.6%, 0.7% 성장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특히 의료보건사회복지(3.8%), 운수업(3.3%), 금융보험(1.9%) 부문의 성장률이 전체 GDP 성장률을 웃돌거나 같았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7.4%), 건설업(-5.5%) 등은 줄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1.3%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2분기 성장률(-2.7%)과 비교하면 역성장 폭이 줄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역시 2.5% 반등했다. 교역조건 개선 덕에 성장률(2.5%)이 실질 GDP(1.9%)보다 높았다.

2020. 10. 27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이투뉴스

[기사링크](#)

(요약) 한전, 1.8GWh 전력망 ESS설치 시동

- 중요지점에 대거 설치하여 주파수 등 계통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약을 완화하려는 취지
- 1단계로 내년 12월까지 전국 변전소 10곳에 PCS(전력변환장치) 500MW 및 배터리 460MWh 설치하고 2단계로 2022년말까지 변전소 12곳에 PCS 900MW 및 배터리 820MWh 추가 구축할 예정



송배전망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전력망에 배터리용량 기준 1.8GWh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한다. 언제든 충전·방전이 가능한 ESS를 중요 지점에 대거 설치, 주파수 등 계통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이 제공한 '계통 안정화 공공 ESS 구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내년 12월까지 전국 변전소 10곳에 PCS(전력변환장치)**

500MW 및 배터리 460MWh를 설치한다. 이어 2022년말까지 2단계로 변전소 12곳에 PCS 900MW 및 배터리 820MWh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전력회사가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망 ESS를 확충하는 건 이례적이다. MWh당 3억~3억5000만원으로 형성된 국내 ESS배터리 설비단가를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수조원 규모의 새 ESS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앞서 한전은 2014년부터 4년간 자사 변전소에 주파수조정용(FR) ESS 376MWh를 설치했다. 애초 500MWh까지 설비량을 늘리려 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 하락과 연쇄 화재, 내부감사 등으로 2017년 말 사업을 접고 다수설비를 운영 중단했다.

불씨를 되살린 건 올해 2월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계약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계통 제약 증가 대책 일환으로 전력망 ESS 구축을 검토했다. 지난 8월 1,2단계 공공 ESS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제주계통용 ESS의 경우 정부 전력기반기금까지 확보했다. 이들 ESS사업의 1차 목적은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해안~수도권, 서해안~수도권 구간의 발전계약 완화다. 한전은 신한울~신경기 HVDC(초고압직류송전선)와 당진~신송산 345kV가 준공되는 2026년과 2023년까지 이들지역의 발전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ESS를 이용해 제약량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계통 고장 시 ESS로 빠르게 주파수를 회복시키면 발전기 탈락 허용량이 증대돼 결과적으로 발전계약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ESS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동해안·서해안 발전제약을 평균 88%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자체분석 결과

과다. 필요에 따라 예비력 설비로도 활용한다.

한전 계통계획처 관계자는 "PCS 용량은 주파수 예비력과 발전기 단위용량을 감안해 결정했고, 배터리는 주파수와 발전제약완화 검증을 위한 충방전율(SOC)을 고려해 용량을 책정했다"면서 "향후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예비력 확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륙계통 ESS가 계통안정화용이라면, 제주계통 ESS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가 주목적이다. 한전은 연말까지 김제변전소와 울산변전소 FR-ESS(PCS 40MW, 배터리 10MMWh)를 서제주변환소로 이설한 뒤 내년말까지 PCS 55MW배터리 25MMWh를 제주계통에 추가할 계획이다.

전력망 고장으로 발전기가 탈락하면 주파수가 허용범위(59.8Hz)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태양광설비 자체보호기능이 동작할 경우 발전량이 추가 감소해 주파수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ESS로 파급영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는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승하면서 풍력발전기 출력제어 빈도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한전은 계통에 설치한 ESS가 재생에너지 공급과잉 시 수요로 기능하면서 과전압과 과주파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풍력발전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154kV급 송전선로용 ESS사업도 추진한다. 한전은 2023~2025년까지 PCS 100MW배터리 5000MMWh규모 재생에너지 ESS 시범사업을 벌여 4시간 지속 충방전이 가능한 장주기ESS와 이동형ESS 기기를 개발하고 효과도 검증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ESS 전문기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밸런싱 주체로서 한전이 나서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화재여파와 REC(신재생가중치) 일몰제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이미 중소ESS 생태계는 완전 붕괴된 상태"라며 "최저가 입찰로 대기업 EPC와 배터리회사만의 잔치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단위 로드맵으로 중소민간이 주도하는 ESS산업도 부양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점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계통 ESS 관련사업을 전담하는 형태는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ESS 엔지니어링기업 관계자는 "선진국은 민간기업도 에너지시장과 용량시장, 보조서비스시장에 ESS로 자유롭게 진입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벌이면서 ESS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시장진입 제약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해외기술 종속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2020. 10. 28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지앤이타임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74>

(요약) RE100 이행수단, 한전 배제된 직접 계약 허용해야

- 제 3자 PPA방안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PPA를 체결하여 전력을 인정받는 것.
- 한전이 중개를 해야할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

산업부가 '국내 RE100 이행수단'으로 발표한 '한전을 통한 제 3자 PPA'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산업부가 수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지난 22 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독점판매사업자 지위를 가진 한전이 중개사업자 지위를 가질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산업부 정승일 차관이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RE 100은 전기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RE 100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요금제와 REC 직접구매, 한전 중계 제 3자 전력구매계약(PPA), 직접 자본투자 등 이행수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제 3자 PPA' 방안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중개'를 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낮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을, 밤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주로 낮 시간대 생산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이 많아질수록 한전은 좋은 시간대에 좋은 계약을 뺏기게 된다. '중개'를 해야 하는 한전은 '독점판매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이 체결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 '중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독점판매사업자로서 야간시간대 보완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유리한 구조에서 전기소비자와 보완공급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소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은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 3자 PPA 방안을 폐기하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중개인 없는 직접 PPA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0. 10. 28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뉴스핌

http://m.newspim.com/news/view/20201028000045

(요약) 퍼스트솔라, 기대 웃돈 3Q 실적에 시간 외서 10% ↑

-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기대이상의 분기 실적 발표.
- 퍼스트솔라는 분기실적이 코로나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퍼스트솔라(First Solar, 나스닥:FSLR)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0% 넘게 반등 중이다.

27일(현지시각) 퍼스트솔라는 3분기 순이익이 1억 5500만 달러, 주당 1.45달러로 1년 전의 3100만 달러, 주당 29센트에서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출도 9억 2800만 달러로 1년 전의 5억 4700만 달러에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팩트셋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당순이익 63센트, 매출 6억 7700만 달러 전망도 크게 웃돈 결과다.

퍼스트솔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분기 실적이 "코로나 19(COVID-19)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퍼스트솔라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26억~29억 달러,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3.65~4.15달러로 이전과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1.62% 하락한 82.39달러로 마감된 퍼스트솔라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반등 중이다.

2020. 10. 29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약) "日 닳아가는 한국, 지금이라도 벗어나야"...한은의 경고

-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 수출 증가율 둔화, 자산가격의 과열 등 일본식 장기침체와 비슷한 현상
-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일본식 장기침체 흐름과 비슷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고령화 여파로 노동력이 훼손된 데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 수출 역량이 강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식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19일 한은은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공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후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그 원인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일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1~1999년 7%, 2000~2009년 4.9%, 2010~2019년 3.3%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내리막길을 걷는 한국 경제의 흐름은 30년 동안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양상을 닮았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1~1991년 4.5%로 고공행진했다. 하지만 1992~2002년 1%, 2003~2007년 1.7%, 2008~2011년 -0.6%, 2012~2019년 1.1%로 침체 구조가 고착화됐다. 일본 장기침체 배경은 고령화에 따라 1995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든 영향이 작용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내수가 위축됐고 성장 잠재력도 갸아먹었다. 일본의 고도 성장을 견인한 수출이 한국·중국에 밀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상품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실질기준)은 1995~2010년 5.5%에서 2011~2019년 2.1%로 낮아졌다.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디플레이션도 일본 장기침체를 부른 '기폭제'로 작용했다. 2001년 9월 일본의 주가가 자산가품이 정점이던 1989년 12월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자산가격이 폭락하자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하락)도 나타났다. 자산가격 폭락으로 소득과 소비여력이 줄어든 가계가 소비를 줄이자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다.

한국도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 등이 일본 장기침체와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평균 상품수출 증가율(실질 기준)은 2001~2010년에 10.6%에서 2011~2019년 4.1%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로 하락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더 낮아져 금융연구원은 2030년에는 0.97%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자산가격 폭락과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지 않은 만큼 한국 경제가 반드시 일본식 장기침체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는 데다 저물가 양상이 고착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다르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가격이 과열됐다는 양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분기별 주택가격 상승률(KB부동산 기준)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뺀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2.9%포인트, 2분기에는 1.8%포인트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수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 4분기(5.3%포인트) 후 가장 높았다. 이 수치가 0%포인트보다 높을수록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국민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이다. 소비자물가도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올해 0.4%(한은 전망치)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응대 한은 조사국 과장은 "일본식 장기침체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0. 10. 29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약) **코로나19 재확산에 추락한 美증시...MS 5%대 '취침'**

- 코로나19 재확산에 유럽 핵심 국가들이 봉쇄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증시 급락
- 미국 또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7만명 수준으로 급증하며 공포 심리가 높아지는 중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 회복의 주역인 기술주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43.24포인트(3.43%) 떨어진 26519.95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65포인트(3.53%) 내린 3271.03에, 나스닥 지수는 426.48포인트(3.73%) 급락한 11,004.87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겨우 기지개를 켜던 경기 회복세에 악재로 작용, '더블딥(이중침체)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7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봉쇄 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는 식당의 실내 영업을 금지키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핵심 국가들도 전국적인 차원의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고, 모임 규모 역시 제한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경제 봉쇄에 따른 경기 회복 우려 속에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증시가 급락하자 공포 심리가 높아지면서 급락 마감했다"며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진 점도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미 증시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전날보다 주당 1057달러(49.6%) 내린 202.68에 거래를 마쳤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익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알파벳(-551%) 페이스북(-551%) 트위터(-529%) 등도 5%대로 큰 폭 하락했는데, MS의 검색 및 광고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감소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분기 MS 검색 광고 수익이 18% 감소했을 때 알파벳은 10% 감소하는 등 상관관계가 크다는 분석이다.

아마존은 전날보다 주당 123.55달러(3.76%) 내린 3162.78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도 4% 넘게 내렸고 페이스북(-4.05%) 테슬라(-4.39%) 등 기간 상승이 컸던 종목들도 떨어졌다.

여행주와 항공주도 급락했다. 델타항공은 전날보다 주당 1.06달러(3.45%) 떨어진 29.65에 거래를 마쳤다. 부킹닷컴(-5.46%)도 큰 폭 내렸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주와 항공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0. 10. 3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02899591>

(요약) 기관들, 신재생·디지털·신인프라 투자 적극 검토

-국체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인프라 자산에서 가격 양극화
-신재생, 디지털 인프라 등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 매력에 급상승

“코로나19 사태로 인프라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ASK 2020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인프라 투자 관련 패널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 기관 투자 담당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존 투자 상식을 크게 바꿔놨다고 입을 모았다. **국체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인프라 자산에서 가격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루 ABL 생명 자산운용전략팀장은 “과거 ‘이 정도 위험은 견딜 만하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했던 최악을 넘어선 충격을 가져왔다’며 “코어자산(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여겼던 도로, 철도, 공항조차 선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장한 롯데손해보험 금융투자그룹장은 “시장 영향을 받는 석유·세일가스 미드스트림(운송 및 저장)뿐 아니라 공공시설도 타격을 받았다”며 “도로, 공항의 경우 이용 실적에 따른 수익배분 자산과 정부에서 비용 지급을 약속한 자산의 가치가 천지 차이로 벌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극단적인 상황에도 안전한 자산을 찾아야 한다”며 “선진국 정부나 글로벌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이 수익을 책임지는 자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등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 매력은 급상승했다는 평가다. 이 그룹장은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앞으로 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로부터 최소 수익을 보장받는 등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2020. 10. 3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805051>

(요약) 한전도 脫석탄 선언...“해외 화력발전 신규 사업 안한다”

-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 저탄소친환경 해외 사업 개발에 집중.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춰 지속가능경영.
- 한전은 이사회 산하에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ESG 분야 역량을 강화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앞으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 저탄소친환경 해외 사업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요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발전 관련 업계는 한전의 이번 조치로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이날 오후 5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에너지 전환 시대 도래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 저탄소친환경 해외 사업 개발에 집중하고 신규 석탄화력 수출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탄화력 사업 4건 중 필리핀 팡가시난 사업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사업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910, 베트남 봉양2 사업은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상대국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신뢰 관계, 관련 기업 생태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 사업은 2050년 이후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한전은 “운영 중인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도 국제 환경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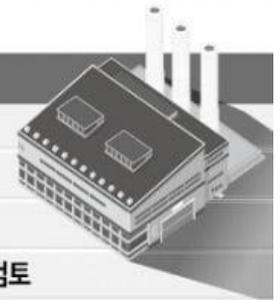
한전은 또 이사회 산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ESG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의 석탄발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 들어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지난 9월 말 발의했다.

이 법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내외 비난 여론과 여당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쪽으로 결론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삼성물산이 지난 27일 비금융 주요 기업 중 첫 번째로 ‘탈석탄 선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국전력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

국가	발전소명	사업비(달러)	향후 계획
인도네시아	자와9·10	34억	지속추진
베트남	봉양2	23억	지속추진
남아공	타바메시	21억	중단 검토
필리핀	팡가시난	20억	LNG 전환 검토



*2050년까지 한전이 운영하는 해외석탄화력발전사업은 모두 종료

자료: 한국전력

업계에선 한전의 이번 신규 해외 석탄발전 중단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에 발을 맞추기 위한 의미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김종갑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업계의 위축과 관련 기업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석탄발전 수주를 주요 먹거리로 삼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협력 중견중소기업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한전 대신 기술력이 낮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석탄발전 사업을 주도하면 지구 환경오염이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기업은 석탄발전 수출 때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LNG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이 크게 높지 않은 친환경 기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석탄발전 수출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이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제한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런 기술을 갖추지 못한 중국 기업들이 한전의 석탄발전을 대체하면 탄소배출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